

## 7세기 신라 국원소경의 공간과 주민의 신분 문제\*

최경선\*\*

- 
- I. 머리말
  - II. 국원소경의 범위
  - III. 국원소경의 읍중과 부곡
  - IV. 소경 주민의 신분
  - 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와 구성을 살피고 국원소경, 특히 중심지 바깥의 공간에 살았던 주민의 신분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밝히기 위해 조선 시기 지리서와 고지도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헌 기록과 금석문을 검토하였다. 국원소경의 범위는 조선 시기 충주목의 범위와 거의 비슷하겠으나 몇몇 방면에서는 차이가 보였다. 특히 청풍현과 음죽현과의 경계가 그러하였다. 대략 국원소경은 오늘날의 충주시와 음성군·괴산군 등의 일부를 포괄하였다.

국원소경의 공간 구성은 『三國史記』 强首傳의 분석과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三國史記』 강수전에는 畚中과 釜谷이 대비되는 공간으로 제시되었다. 읍중은 소경의 중심지로 지금의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일대에 해당한다. 탑평리 유적에서는 신라 시기 건물지와 취락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인근에는 누암리·하구암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부곡은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비정하기 어려우나, 국원소경의 직속 촌 내지는 하위 촌락으로 생각된다. 제철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소경의 중심지와 멀지 않으며 교통로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은면과 대소원면 등에 7세기대 목탄요 유적이 위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끝으로 부곡 야장의 사례를 통해 소경의 읍 외의 지역에 사는 원주민의 신분을 밝혀보았다. 신라에서는 장인에게 관등을 수여하여 주로 4·5두품으로 대우하였다. 제철산업은 국가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2068).

\*\* 연세대학교 석사 졸업

의 주요 산업이었으므로, 야장은 여타 장인과 마찬가지로 신라 국가로부터 관등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야장의 딸은 ‘賤’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신라 지배층의 지방민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즉 읍중에는 강수 집안과 같이 왕경에서 사민되어 후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지배층이 모여 살았던 반면, 읍외에 살던 주민은 소경민이었음에도 여타 지방민과 동일하게 부에 편적되지 않고 골품과 경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국원소경의 읍중과 읍외의 공간은 신분적으로 구별된 것이다.

주제어 : 국원소경, 중원경, 강수, 郡中, 釜谷, 야장

## I. 머리말

557년(진흥왕 18)에 오늘날의 충주 지역에 해당하는 國原에 소경이 설치되었다. 아시촌에 이어 신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되었으며, 신라통일기까지 존속되어 가장 오랜 시간 소경이었던 곳이다. 그만큼 국원소경은 소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와 구성을 살피고, 국원소경에 살았던 주민의 신분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원소경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치소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2년에 이루어진 중원경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도 중원경의 치소가 주요 주제였다.<sup>2)</sup> 지금까지 치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탐평리설,<sup>3)</sup> 충주시내설,<sup>4)</sup> 이동설(탐평리→충주시내)<sup>5)</sup> 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중원경의 치소에는 왕경의 坊里制를 모방하여 격자형의 도시구획이 이루어졌음이 논의되었다.<sup>6)</sup> 이러한 연구는 소경의 구조와 성격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아쉬운 점은 소경의 전체 범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7)</sup> 서원소경의 경우에는 그 공간 범위에 대한 연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sup>8)</sup> 소경의 전체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치소가 있었던 중심지뿐만 아니라 촌까지 고려할 수 있었다. 국원소경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조선 시기 지리서와 고지도 등을 포함하여 지명과 관련된 각종 문헌 기록을 활용하고, 금석문에 나타나는 지명을 참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염두에 두고서 『三國史記』 強首傳을 분석하여 소경의

2) 忠州工業專門大學工業博物館 篇, 1992.

3) 張俊植, 1998, 212~222쪽.

4) 朴泰祐, 1987, 65~67쪽 ; 轟 博志, 2015, 15쪽.

5) 尹武炳·朴泰祐, 1992, 94쪽 ; 박성현, 2012 ; 황인호, 2013.

6) 山田隆文, 2008, 38~39쪽 ; 황인호, 2013, 242~243쪽 ; 轟 博志, 2015, 14~16쪽.

7) 서영일, 2002, 106쪽에서는 국원소경의 관할 범위가 오늘날 충주시의 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  
한 바 있다.

8) 강민식, 2017 ; 김영관, 2022.

공간 구성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강수전에서 畝中과 釜谷은 대비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읍중과 부곡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것인데, 특히 부곡의 위치를 새롭게 추정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부곡의 위치는 대부분 국원소경 외의 지역에서 찾았다. 충주는 물론 읍성의 지명을 탐색해 보고, 7세기대 충주 지역의 제철유적과 목탄요 유적을 정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부곡의 위치를 추정해 보겠다.

끝으로 소경 주민의 신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경 주민의 신분에 대해서는 주로 중심지에 살았던 주민에 대해 관심이 기울여졌다. 부곡 야장의 신분도 검토함으로써 소경의 중심지 바깥에 거주하였던 주민의 신분에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때 신라 장인의 사례가 참고될 것이다. 국원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국원소경이 설치된 이후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국원소경의 중심지에 사는 주민과 그 외의 촌에 사는 주민 사이의 차이를 더욱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국원소경의 범위

이 장에서는 강수가 살았던 시기의 국원소경의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공간의 범위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보려고 한다.

『三國史記』 지리지를 살펴보면, 중원경 주변으로는 槐壤郡(지금의 괴산군), 泝川郡의 黃驍縣(지금의 경기도 여주시), 黑壤郡의 陰城縣(지금의 충북 음성군), 柵堤郡(지금의 제천시), 北原京(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古寧郡의 冠山縣(지금의 경북 문경시 문경읍) 등이 있었다. 7세기 강수가 살았던 시기와 지리지의 원전이 만들어진 시기 사이에 행정구역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三國史記』 지리지를 기준으로 삼아 소경의 범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국원소경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선 시기 충주목의 영역을 참조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1]은 대동여지도에 충주목의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오늘날의 충주시와 19세기 충주목의 범위는 차이가 난다. 조선 시대 충주목은 오늘날 음성군, 진천군, 안성시, 이천시, 괴산군, 제천시 일부 지역까지도 관할하였다. 『湖西邑誌』(1871)에 따르면 충주목 하에는 38개 면이 있었다. 1906년(순종 3)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지방구역정리권이 반포되어 충주목에 속하였던 면 중에 금목면, 생동면, 맹동면, 소탄면, 법왕면, 지내면, 대조면, 두의면 사다면, 천기면, 감미면, 거곡면 등 12개 면이 음성군에, 불정면 1개 면이 괴산군에 속하게 되었다.<sup>9)</sup> 또 1914년 4월 1일에는 군·면 이동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거하여 소파면과 사이면이 음성군에, 감물면이 괴산군에, 덕산면이 제천군에 편입되어 충주군에는 21개 면만이 남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몇 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충주

9) 최일성, 2010, 96-97쪽.



[그림 1] 대동여지도의 충주목(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시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지도와 지리서를 참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원소경의 범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대동여지도에서 충주목을 둘러싼 州郡의 변천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3] 충주목 주변 군현의 변천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천	나제군	제주(원주)	제천현
청풍	청풍현	청풍현(충주목)	청풍군
예천	예천군	기양현(안동부)	예천군
문경	관산현(고령군)	문경군(상주목)	문경현
연풍	-	장연현(충주목)	연풍현
		장풍현(충주목)	
괴산	괴양군	괴주(충주목)	괴산군
음성	음성현(흑양군)	음성현(충주목)	음성현
청안	-	청당현(청주목)	청안현
진천	흑양군	진주(청주목)	진천현
안성	백성군	안성현(천안부)	안성군
죽산	개산군	죽주(광주목)	죽산현
음죽	음죽현(개산군)	음죽현(충주목)	음죽현
여주	황효현(소천군)	황려현(원주)	여주목
원주	북원경	원주	원주목



다음으로 국원소경과 청풍현의 경계를 살펴보겠다. 월악산 일대는 조선 시기와 신라 시기에 행정구역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기에 월악산 일대는 충주목과 청풍군에 나누어 속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충주목 산천조에는 월악산이, 불우조에는 덕주사가 기록되어 있다. 또 사묘조에는 월악산에 제사를 지내는 月岳祠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충주목의 東倉은 『忠州郡邑誌』에 德山面に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sup>12)</sup> 朝鮮五萬分一地形圖 黃江里(1918)에는 송계리 지명 옆에 괄호로 동창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청풍군 산천조에도 월악산이 기재되어 있으며, 불우조에는 月岳寺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월악산의 서쪽 사면은 충주목에 속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라 시기에 이 지역은 청풍현에 속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 제사지에는 小祀를 지내는 지역 중 月見山에 대한 세주에서 그 소재 지역을 ‘奈吐郡 沙熱伊縣’이라고 하였다.<sup>13)</sup> 나토군은 나제군의 이전 명칭이며, 사열이현은 청풍현의 이전 명칭이다. 월악산이 국원소경에 인접하였음에도 그 소재지를 ‘奈吐郡 沙熱伊縣’이라고 기록한 것은 월악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포함하여 월악산 일대가 사열이현(청풍현)에 속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月岳祠를 포함하여 월악산 서쪽 일대가 충주목에 속하였던 조선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국원소경과 나제군의 경계는 계명산-마즈막재-남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동달천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이렇게 조선 시기와 달리 월악산과 그 동쪽의 德山 일대가 국원소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원소경과 상주 소속의 관산현·예천군이 직접 경계가 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림 3] 청풍군과 충주목의 경계

12) “東倉 <在州東五十里德山面四十間>”(『忠州郡邑誌』 외창조)

13) “月見山 <奈吐郡沙熱伊縣>”(『三國史記』 권32 잡지1 제사 소사)

제사지의 산천명 다음에 세주로 표기된 지명은 산천의 소재지이며, 해당 산천의 제사를 주관하는 행정 단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채미하, 2008, 56쪽 각주 59번 ; 전덕재, 2021, 56-60쪽).

다음으로 조선 시기 연풍현에 해당하는 지역과 국원소경의 경계를 검토해 보겠다. 대동여지도에는 충주목 남쪽, 괴산 동쪽에 연풍이 표시되어 있다. 연풍현은 渴馬峴 남쪽으로 충주목과 경계를 이루었다. 그런데 『三國史記』 지리지에는 연풍과 관련된 지명이 전하지 않는다. 고려 시기에 가서야 충주목의 속현으로 장연현과 장풍현이 확인된다.

A. 長延縣은 본래 고구려의 上莒縣이다. 현종 9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충주목에] 내속되었다. 온천이 있다.<sup>14)</sup>

B. 長豐縣은 고구려 때의 명칭은 알 수 없다. 현종 9년에 [충주목에] 내속되었다.<sup>15)</sup>

장연현은 본래 고구려의 상모현이라고 하는데, 상모현은 『三國史記』 지리지에는 전하지 않는다. 1018년 명칭을 개정하기 이전의 명칭일 것이다. 『世宗實錄』 지리지 연풍현조의 세주에는 ‘『六翼』에서는 長延을 옛 上莒縣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六翼은 『周官六翼』으로 장연현의 개정 이전 명칭이 상모현이었음을 역시 알 수 있다.<sup>16)</sup> 그렇다면 장연현과 장풍현은 고려 시기에 비로소 생긴 현이었을까? 만일 그러했다면 연혁에 ‘本高句麗上莒縣’이나 ‘高句麗時稱號未詳’이라는 구절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장연현과 장풍현이 고려 이전부터 군현으로 유지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본 읍호에 대해 고구려 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혹은 미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7)</sup> 즉 신라 시기부터 있었던 현인데 『三國史記』에는 누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경에는 영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국원소경에 속하였다기보다는 영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괴양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고려 시기의 장연현과 장풍현은 1394년(태조 3)에 합쳐져 장풍현으로 불렸고, 1403년(태종 3)에 다시 연풍현으로 고쳐졌다. 1429년(세종 11)에 연풍현의 토지와 민호가 잔약하므로 괴산 東面의 角平·覺淵洞·吾田과 충주 內의 安富驛, 충주 東面의 楸洞·原通·彌內를 연풍에 속하게 하였다.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연풍현의 영역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 시기 장연현에는 온천이 있었다고 하므로 安富 일대를 포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의 연풍현의 범위와 고려 시기의 장연현·장풍현의 범위는 비슷하였을 것이다. 신라 시기에도 이 지역이 두 개의 현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원소경과의 경계는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충주목과 연풍현의 경계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sup>18)</sup> 즉 갈마고개와 수회리 사이에 경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14) 『高麗史』 권56 志 권제10 지리1 양광도 충주목 장연현.

15) 『高麗史』 권56 志 권제10 지리1 양광도 충주목 장풍현.

16) 윤경진은 『周官六翼』에서 확인된 상모현을 『高麗史』 지리지에 본 읍호로 삼입하면서 ‘本高句麗上莒縣’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윤경진, 2012, 272쪽).

17) 윤경진, 2012, 271~272쪽 참조.

18) 『世宗實錄』 권43 세종 11년 1월 계해조.



[그림 4] 연풍현과 충주목의 경계

다음으로 괴양군과 국원소경의 경계를 살펴보겠다. 지금의 괴산군에 속한 불정면과 감물면은 1906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괴산군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시기 불정면과 감물면은 충주목에 속하였고, 대동여지도에서 충주목과 괴산군의 경계는 闊雲川(현재 음성천) 남쪽으로 송명산-古峴-永登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였다. 송명산은 『大東地志』에 成佛山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며, 동여도에는 송명산 밑에 成佛寺가 표시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성불산이 명덕산과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동하면에 속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송명산은 오늘날의 성불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고현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괴산에서 음성으로 가는 길목으로 지금의 37번 국도 북쪽의 국사산·갑산 부근으로 추정한다. 국원소경과 괴양군의 경계는 현재 괴산군 불정면과 괴산읍, 음성군 소이면과 괴산군 소수면 사이의 경계와 비슷할 것이다.



[그림 5] 괴산과 충주목의 경계

다음으로 음성현과 국원소경의 경계는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것과 대동소이하였을 것이다. 음성현은 수정산-가섭산-보현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체로 이러한 산줄기를 경계로 국원소경과 음성현이 구분되었을 것이다. 다만 고려 시기 廣州道の 遙安驛이 음성의 관할로 되어 있음이 주의된다.<sup>19)</sup> 이곳은 지금의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로 비정된다. 가섭산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요안역은 조선 초까지 음성현에 속하였다가 1478년(성종 9)에 충주목에 속하게 되었다.<sup>20)</sup> 따라서 음성현의 경계가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것보다는 북쪽으로 좀 더 확장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에는 고려 광종이 어머니 神明順成王太后 柳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崇善寺가 있었으므로,<sup>21)</sup> 북쪽 경계는 지금의 요도천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원소경과 음성현의 경계는 가섭산 산줄기나 요도천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6] 음성현과 충주목의 경계

다음으로 국원소경의 서쪽 경계를 살피겠다. 조선 시기 충주목은 지금의 음성군 감곡면·생곡면·금왕읍·삼성면·대소면·맹동면 등을 포함하였다. 그에 따라 음죽, 죽산, 안성, 진천 등과도 경계를 이루었다. 과연 신라 때도 국원소경의 영역이 그와 같았는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금왕읍·삼성면·대소면·맹동면이 자리한 곳은 진천분지로 흑양군과 자연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중 일부는 흑양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19) 『高麗史』 권82 志 권제36 병2 참여 광주도.

20) “驛二 坎原 龍安 烽火一處 加葉山”(『世宗實錄』 권149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 음성현); “用安驛 <在州西四十五里 舊屬陰城 成宗九年移屬於州>”(『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충주목 역원조); 『成宗實錄』 권77 성종 8년 윤2월 정묘.

21) 金顯吉, 2011; 충청대학 박물관, 2006 참조.



[그림 7] 팔도군현지도에 표시된 충주목의 서쪽 경계(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에 이르게 되며, 차고개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북쪽으로는 경기도 안성의 일죽면,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으로 이어진다. 기와는 峻豐 4년, 즉 936년(광종 4)에 제작된 것이다. 介山은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일대로 신라 경덕왕대의 이름이며, 고려 초에 竹州로 바꾸었다고 한다.<sup>24)</sup> 기와의 지명은 제작처 또는 사용처를 의미할 것이다.

망이산성은 지리적으로 안성시 죽산면과 가깝다. 936년에 망이산성은 죽주에 속하여 죽주에서 제작된 기와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시기에도 마이산 일대가 개산군에 속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시기와 달리 신라 시기에는 죽산 지역이 郡 단위였음을 고려하면, 신라 시기부터 마이산 일대가 개산군에 속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망이산성 부근, 즉 오늘날의 음성군 삼성면의 일부는 개산군의 영역이었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국원소경과 음죽현의 경계를 살펴보겠다. 대동여지도에서 충주목과 음죽현의 경계는 무극역이 있었던 관말(지금의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 인접하였으며, 대체로 현재 임오산과 응천 사이, 그리고 현재의 청미천을 경계로 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장호원이 있었던 곳은 충주목에 속하였다. 그런데 신라 시기 음죽현은 조선 시기와 달리 청미천 동쪽 지역, 지금의 여주시 점동면과 충주시 감곡면까지 미쳤다.

음성의 마이산(망이산) 일대로 주의되는 바이다. 마이산은 음성군 삼성면과 안성시 일죽면, 이천시 율면에 걸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충주목 산천조에 기재되어 있어 조선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충주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22)</sup> 그런데 마이산에 소재한 망이산성 서문지에서 ‘□□/峻豐四年壬戌大介山/竹州’ 銘 기와가 출토되어<sup>23)</sup>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문지는 망이산의 정상부와 해발 458m의 현재 헬기장이 건립되어 있는 봉우리 사이의 산줄기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계곡부의 남쪽에 설치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음성군 삼성면에 속한다. 이곳을 따라 내려가면 차고개 마루

22) “望夷山<在州西九十一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충주목 산천조)

23) 단국대학교 박물관, 1999, 147~148쪽.

24) “竹州 本高句麗皆次山郡 新羅景德王 改爲介山郡 高麗初 更今名.”(『高麗史』 권56 志 권제10 광주목 죽주)

C. 진성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888)에 溟州僧正 釋 口道와 東宮內養 安處玄 등을 특별히 파견하여 멀리 말씀을 내리고 멀리서 법력을 빌었다. 그리고 陰竹縣 元香寺를 영원히 禪那別觀에 속하게 하였다(「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sup>25)</sup>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탑비」에는 888년에 음죽현에 있는 원향사를 선나별관에 속하게 한 사실이 전한다. 원향사지는 오갑산 서북쪽 기슭에서 확인되었다.<sup>26)</sup> 지금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41-1번지이다. 1999년에서 2001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사역 전체에서 ‘元香寺瓦匠僧順文’ 銘 기와가 수습되어 해당 유적이 원향사지임이 밝혀졌다.<sup>27)</sup> 신라 시기 음죽현은 지금의 청미천 동쪽 오갑산 일원을 포함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원소경과 음죽현의 경계는 조선 시기 충주목과 음죽현의 경계와는 달랐을 것이다. 오갑산보다 남쪽에 있는 원통산-승대산이 그 경계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그림 8] 음죽현과 충주목의 경계

다음으로 국원소경과 황효현의 경계를 살펴보겠다. 대동여지도에서 여주목과 충주목의 경계는 오갑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와 청미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음죽현과 국원소경의 경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았다면, 황효현과 국원소경의 경계는 조선 시기의 여주목과 충주목의 경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오갑산 일대는 음죽현의 영역

25) “眞聖大王御宇之二年也 特遣溟州僧正釋口道東宮內養安處玄等 遠降綸言 遙祈法力 仍以陰竹縣元香寺 永屬禪那別觀”

26)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 韓國道路公社, 2003.

27)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 韓國道路公社, 2003, 117쪽.

에 들어가므로 이 부근에서는 국원소경과 황려현의 경계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대동여지도에 안평역(지금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안평부락)이 표시된 부근의 경계는 신라 시기에 비숫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高麗史』 김취려전에 1217년에 김취려와 최원세가 이끄는 고려군이 적을 쫓아 황려현 법천사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sup>28)</sup> 13세기 초에 황려현의 영역이 남한강 동안까지 이르렀음을 알릴 수 있다. 그렇다면 법천사지가 있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와 마주한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까지도 황려현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3세기 황려현과 충주목의 경계는 오갑산 산줄기보다 남쪽에 형성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신라 시기 황려현과 국원소경의 경계는 청미천을 경계로 하였거나 그보다 남쪽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림 9] 여주목과 충주목의 경계

마지막으로 국원소경과 북원경의 경계를 살펴보겠다. 대동여지도에서 충주목과 원주목은 청계산 북쪽에 있는 엄정천을 경계로 하여 구분되었다. 엄정천은 지금의 운계천이다. 운계천 북쪽의 현계산 밑에는 居頓寺址가 있다. 거둔사의 전신은 安樂寺로 이해되며, 864년(경문왕 4)에 端儀長翁主가 지증대사에게 주지를 청하였던 곳이다. 1025년(고려 현종 16)에 세워진 「原州居頓寺址圓空國師塔碑」의 제액에는 ‘高麗國原州賢溪山居頓寺’ 라고 하여 11세기에 거둔사가 원주에 속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청계산 남쪽 기슭에는 靑龍寺址가 있는데, 「忠州靑龍寺址普覺國師塔碑」(1394)에는 보각국사가 14세기 중반에 ‘충주 청룡사(忠之靑龍寺)’ 에 가서 암자를 손수 지었다고 한다. 고려 시기에도 현계산 일대는 원주에 속하고, 청계산 일대

28) “官軍追賊 至黃驪縣法泉寺 移次禿帖”(『高麗史』 권103 열전16 諸臣 김취려) 한편 이보다 앞선 기록인 「原州法泉寺址智光國師塔碑」(1085)의 제액에는 ‘原州法泉寺’ 라고 하여 법천사가 원주에 속하였다고 되어 있다. 시기에 따라 법천사가 있던 지역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는 충주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기록이 없는 이상 신라 시기에도 운계천과 청계산 산줄기를 경계로 복원소경과 국원소경이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29)</sup>



[그림 10] 원주목과 충주목의 경계

이상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조선 시기 충주목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았다. 행정구역의 변천과 관련된 세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추정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국원소경의 범위는 충주목의 범위와 거의 비슷하여 오늘날의 충주시와 음성군·괴산군 등의 일부에 걸쳐 있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조선 시기 충주목과는 그 경계가 달랐던 경우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월악산 일대는 신라 시기에는 나제군 청풍현에 속하였다고 판단되어 국원소경과 청풍현의 경계는 동달천의 서쪽에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음죽현의 범위도 조선 시기와 달라 음죽현과 국원소경은 원통산-승대산을 경계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황호현과 국원소경의 경계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六十峙 이서의 진천분지 일대는 국원소경의 범위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호하다. 망이산성이 있는 마이산 일대는 개산군에 속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지금의 음성군 금왕읍·삼성면·대소면·맹동면에 속한 지역 중 일부는 흑양군에 속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고려하며, 국원소경의 내부 공간과 신분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29) 이인재, 2016, 91쪽에서도 소태제가 복원경과 중원경의 경계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 Ⅲ. 국원소경의 읍증과 부곡

국원소경의 내부 공간에 대한 기록으로는 『三國史記』 강수전을 들 수 있다. 관련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 강수는 일찍이 釜谷 대장장이 집 딸과 野合하여 좋아하는 마음이 매우 돈독하였다. 20세가 되어서 부모는 邑中의 여자 중 용모와 행실이 뛰어난 자를 중매하여 장차 아내로 삼게 하려고 하였다. 강수는 사양하며, 두 번 장가드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노하며 말하기를, “너는 지금 명성이 있어 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미천한 자를 짝으로 삼으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다. 강수가 두 번 절하고 말하길,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를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일찍이 옛사람의 말을 듣건대, ‘조강지처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비천할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賤妾이라고 해서 차마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sup>30)</sup>

무열왕 · 문무왕 · 신문왕대에 문장으로 활동하였던 강수는 증원경 출신이었다. 그는 20세가 되기 전에 釜谷 대장장이 집 딸과 야합하여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邑中의 여자와 혼인시키고자 하였으나 강수는 아무리 賤妾이라도 차마 버릴 수 없다며 사양하였다. 여기에서 읍증과 부곡은 대비되는 공간으로 제시되는데, 읍증과 부곡이 어디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 장성하여 스스로 책을 읽을 줄 알았으며, [문자의] 뜻과 이치를 두루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 의지를 살피고자 하여 묻기를, “너는 불교를 배우겠는가? 유학을 배우겠는가?” 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듣기로, 불교는 세속 바깥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속의 사람인데, 불교를 배워 무엇에 쓰겠습니까? 유자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좋을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드디어 스승에 나아가 『孝經』 · 『曲禮』 · 『爾雅』 · 『文選』을 읽었다. 들은 바는 알았으나, 얻은 바는 더 고원하였다. 뛰어나고 장대하여 당대 걸출한 인물이 되었다. 마침내 벼슬에 나아가 관직을 역임하니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sup>31)</sup>

30) “強首常與釜谷治家之女野合 情好頗篤 及年二十歲 父母媒邑中之女有容行者 將妻之 強首辭不可以再娶 父怒曰 爾有時名 國人無不知 而以微者爲偶 不亦可恥乎 強首再拜曰 貧且賤 非所羞也 學道而不行之 誠所羞也 昔聞古人之言曰 糟糠之妻 不下堂 貧賤之交 不可忘 則賤妾所不忍棄者也”(『三國史記』 권46 열전6 강수전)

31) “及壯 自知讀書 通曉義理 父欲觀其志問曰 爾學佛乎 學儒乎 對曰 愚聞之 佛世外教也 愚人間人 安用學佛爲 願學儒者之道 父曰 從爾所好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所聞雖淺近 而所得愈高遠 魁然爲一時之傑 遂入仕歷官 爲時聞人”(『三國史記』 권46 열전6 강수전)

강수가 釜谷 야장의 딸과 野습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20세에 아버지가 지금 나라 사람 중에 강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미 관직에 나아가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수가 ‘及壯’ 한 이후 유학에 뜻을 두고 스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대략 15세 전후로 생각된다.<sup>32)</sup> 『三國史記』 직관지에서 國學 학생의 나이가 15세에서 30세까지로 되어 있고,<sup>33)</sup> 최치원이 12살의 나이에 당으로 유학하였음을 고려하면,<sup>34)</sup> 강수도 15세 무렵에 스승을 찾아가 수학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수가 부곡 야장의 딸을 만난 시기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일 것이다.

이 시기에 강수는 어디에서 수학하고 관직 생활을 하였을까? 강수가 스승에게 배운 『孝經』, 『曲禮』, 『爾雅』, 『文選』 등의 경전이 국학 및 독서삼품과의 과목과 비슷한 점을 들어 왕경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35)</sup> 하지만 국원소경에서 수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해 봉황동과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은 지방에서 유학 학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36)</sup> 고려 초에 세워진 「龍頭寺址鐵幢竿」(962, 광종 13)에는 學院卿, 學院郎中 등의 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고려 중앙의 관직이 아니라 청주 지방의 것이며, 또 이것은 신라 말로 소급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7)</sup>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례로 『新增東國輿地勝覽』 公州牧 名宦條의 韓愨意란 인물을 들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韓愨意가 당 天寶 연간(742~756)에 熊川 助教로 州人의 묘비를 지었음이 전해진다.<sup>38)</sup>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15세기까지 孝家里에 비석이 남아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비문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三國史記』에서는 747년(경덕왕 6)에 국학의 여러 학업에 博士와 助教를 두었다고 전한다.<sup>39)</sup> 한서와의 사례를 통해 조교가 비단 중앙의 국학에만 두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의 거점인 주에도 비슷한 시기에 두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라 시기에 지방의 중심지인 州와 小京에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32) 金昌謙, 2006, 44쪽.

33) “凡學生 位自大舍已下至無位 年自十五至三十 皆充之”(『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 상 국학)

34) “致遠少精敏好學 至年十二 將隨海舶入唐求學”(『三國史記』 권46 열전6 최치원)

35) 중원경에서 스승으로부터 초보적인 유학지식과 문장을 배운 뒤, 왕경에서 국가가 관장하는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盧鏞弼, 1994, 181-182쪽; 盧鏞弼, 2007, 206-209쪽; 金昌謙, 2006, 44-46쪽).

36) 尹在碩, 2011, 59-76쪽; 橋本繁, 2014, 148-152쪽; 정동준, 2020, 50쪽.

橋本繁은 계양산성 출토 목간에 대해서는 郡 단위에도 학교가 설치되었을 가능성, 중앙이나 소경의 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학습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李成市, 2021에서는 논어 목간이 다각형 형태에 길이 긴 ‘시각목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학습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신라 국토의 덕치주의를 상징하거나 주술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7) 金光洙, 1972.

38) “韓愨意<唐天寶間爲熊川助教 撰州人番古墓碑 至今在孝家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충청도 공주목 명환 신라)

39) 『三國史記』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6년 정월; 권38 잡지7 직관 상.

40) 朴贊洙, 1991, 41쪽; 朴贊洙 2001, 24-25쪽. 후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인 930년(태조 13)에 西京에 학원을 창설한 것(『高麗史』 권74 志 권제28 선거2 학교)도 신라에서 소경에 학원을 두었던 사실을 본받은 것

물론 강수가 유학을 배우던 시기에는 신라 중앙의 교육기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소경에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경은 골품을 지닌 지배층의 일부가 사민된 곳인 만큼 교육적인 기반은 갖춰져 있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sup>41)</sup> 따라서 강수는 중원경에서 스승을 찾아가 유학을 배웠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강수가 20세 이전에 어디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열왕이 당의 조서를 강수에게 해독하라고 하였을 때에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20세에 이미 나라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면 이미 그 이전부터 중앙에서 활동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수가 왕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또 죽을 때까지 왕경에서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의 부모는 왕경에 있는 가문과 혼인을 통해 유대를 맺고 그로써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도 품어봄 직하다. 그렇지만 강수의 부모가 혼인하기를 원하는 ‘邑中之女’를 왕경에 사는 여성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邑’이라는 표현에 주의하고자 한다.

邑은 京城, 侯國, 城市, 國, 封地, 地方 등을 의미한다.<sup>42)</sup> 도읍으로서의 읍은 다시 宗廟와 先君之主의 유무에 따라 都와 邑으로 구분되기도 하였으며, 또 城市나 지방으로서의 읍은 그 크기에 따라 都와 邑으로 구분되었다고 한다. ‘邑中之女’의 邑은 왕경의 의미로도 지방 고을의 의미로도 새길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서 읍의 용례를 살펴보면, 邑,<sup>43)</sup> 郡邑,<sup>44)</sup> 城邑,<sup>45)</sup> 邊邑,<sup>46)</sup> 鄉邑,<sup>47)</sup> 敝邑<sup>48)</sup> 등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군읍, 성읍, 변읍, 향읍 등은 지방의 고을을 가리키는 말이며, 邑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고구려 유민이 금마저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사이다. 그 이전에 보덕국왕 안승은 왕경으로 이주되어 김씨 성을 하사 받고 왕경의 골품 귀족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보덕국은 망하였으므로 684년 기록에서의 읍은 보덕국의 도읍이라는 뜻보다는 일개 고을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리고 폐읍은 당나라에 상대하여 신라를 낮춰 이른 말이다. 『三國史記』에서 邑은 지방의 고을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왕경을 가리킬 때에는 京,<sup>49)</sup> 京都,<sup>50)</sup> 都人,<sup>51)</sup> 京師,<sup>52)</sup> 王都,<sup>53)</sup> 京城,<sup>54)</sup> 都,<sup>55)</sup> 都城<sup>56)</sup>

로 생각할 수 있다(申千湜, 1983, 16-17쪽).

41) 金光洙, 1972, 120-121쪽.

42) 邑의 의미는 文昌魯, 2000, 63-64쪽 참조.

43)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1월.

44) 『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나해이사금 13년 12월, 15년, 32년 2월 ;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9년 2월.

45) 『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유례이사금 12년 ;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3년;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9월 23일; 권49 열전9 개소문.

46)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9년 8월 ; 권47 열전7 소나.

47) 『三國史記』 권44 열전 장보고·정년 ; 권47 열전7 비녕자.

48)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49)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5월 26일 ;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6년 8월, 11월 5일 ;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즉위년조 ;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10년 ; 권50 열전10 견훤.

50) 『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11년 ; 파사이사금 21년 10월 ; 권2 신라본기2 유례이사금 15년 2

王京,<sup>57)</sup> 王都,<sup>58)</sup> 都人士女,<sup>59)</sup> 國<sup>60)</sup>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왕경 내의 지역을 가리킬 때에는 里나 部 등이 사용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sup>61)</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읍중지녀’는 왕경에 사는 여성보다는 국원소경에 사는 여성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sup>62)</sup>

‘읍’은 국원소경의 치소가 있는 중심지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畚中의 여자는 단지 용모와 행실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강수와 비슷한 신분, 즉 6두품 신분의 여성을 의미할 것이다. 미천한 자를 배우자로 삼아서 부끄럽지 않냐는 아버지의 말에는 신분에 걸맞는 혼인을 바랐음이 드러난다. ‘읍’은 그러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었다.

강수가 국원소경에 살던 7세기 전반에 국원소경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일대였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충주에서는 여러 고분군과 생활유적, 관방유적 등이 확인되었다.<sup>63)</sup> 그 중 탑평리 유적은 생활유적으로 4~7세기 백제·고구려·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복합적으로 발견되었다.<sup>64)</sup> 특히 대형건물지와 신라의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었는데, 전체 부지가 일정한 크기로 분할되고 이에 맞춰 건물지 및 주거지가 배치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취락 내에는 초석적심석군을 갖추고 기와를 얹은 건물지가 확인되어, 관청이나 지배층의 주거공간으로 볼 수 있다.<sup>65)</sup> 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 충주의 동부지역에서는 아직까

월 ; 기림이사금 7년 9월 ; 권3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 33년 4월, 34년 정월 ; 실성이사금 5년 10월 ; 눌지마립간 22년 4월 ; 자비마립간 12년 정월, 14년 3월 ; 소지마립간 2년 5월, 5년 11월;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0년 정월;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2년 2월;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6년 2월, 10년 12월 ;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 10월 ; 효소왕 4년 10월, 7년 2월, 7월 ; 성덕왕 2년 7월, 21년 2월 ;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4년 4월, 13년 4월, 22년 7월 ; 혜공왕 4년 6월, 6년 11월, 13년 3월, 15년 3월 ; 선덕왕 4년 2월 ;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3년 2월, 7년 10월, 11월, 12년 ; 헌덕왕 6년 8월 ; 권11 신라본기11 문성왕 3년, 6년 3월 ; 경문왕 10년 4월, 15년 2월 ; 헌강왕 6년 9월 9일 ;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4월.

- 51) 『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11년 4월.
- 52) 『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17년 7월 ;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2년 3월 ; 권11 신라본기11 경문왕 12년 4월.
- 53) 『三國史記』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26일 ;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8년 9월 ;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2년 7월 ;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 10월.
- 54)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16일 ; 권46 열전6 설총.
- 55)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9년 9월.
- 56) 『三國史記』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9년 정월.
- 57)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18일 ;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11월 ; 권41 열전1 김유신 상 ; 권50 열전10 견훤.
- 58)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9월 11월 ; 권47 열전7 죽죽.
- 59)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5년 2월.
- 60) 『三國史記』 권44 열전4 장보고 정년.
- 61) “貴山少與部人箒項爲友”(『三國史記』 권45 열전5 귀산) ; “標榜其里曰孝養坊”(권48 열전8 효녀 지은) ; “其父老且耄 以其女壯而無伉儷 欲強嫁之 潛約婚於里人”(권48 열전8 설씨녀)
- 62) 徐榮教, 2021, 47쪽에서는 강수만 상경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왕경에 와서 혼사를 의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63) 姜眞周, 2023 참조.
- 64) 韓國教員大學教博物館, 1993 ; 1994 ; 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 중원문화재연구소, 2012 ; 중원문화재연구소, 2013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 선사문화재연구원, 2014.
- 65) 文玉賢, 2014, 26~27쪽.

지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충주읍성에서는 대규모 적심건물지가 조사되었으나, 그 시기는 7세기 후반~8세기 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sup>66)</sup>

탑평리 유적과 인접한 누암리·하구암리 고분군은 탑평리 유적과 밀접한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탑평리 유적에서 발견된 신라토기는 누암리 고분에 부장된 토기와 양식이 일치한다고 한다. 누암리 고분군은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초, 하구암리 고분군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탑평리 유적과 조성 시기가 비슷하다. 한편, 충주 동부 지역의 호암동복합유적, 연수동 고분군, 안림동 174-33유적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으나,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누암리형 과대금구는 누암리와 하구암리 고분군에서만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누암리와 하구암리 고분군의 위계가 동부지역의 고분군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이 점도 탑평리 일대가 국원소경의 중심지였음을 뒷받침한다.

누암리와 하구암리 고분군에는 대금구를 비롯한 위세품이 부장되어 있어 일정한 신분 이상의 사람들이 대대로 모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sup>68)</sup> 강수나 읍중지녀의 집안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釜谷은 읍중과 대비되는 곳으로 국원소경 중심지의 바깥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釜谷은 우리말로 가마골, 가매실, 가매골, 가마을, 가말 등으로 불린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釜谷은 전국 여러 곳에 보이는데, 충주 부근으로는 제천현의 釜谷山이 있다.<sup>69)</sup> 이를 근거로 강수전의 釜谷을 제천의 부곡산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었다.<sup>70)</sup> 그러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충주로부터 거리가 있으며, 신라 때에 朔州 奈堤郡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20세 이전의 강수가 이 지역 사람과 교류하고 만났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곡에 사는 야장의 딸이 강수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야장이 생산한 물품을 읍에 공급하며 자주 왕래하는 상황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부곡은 주변에서 각종 원료(철광석)와 연료(목탄)를 쉽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생산된 물품을 소비지로 운송하기 편리한 곳, 국원소경의 중심지와 연결되는 교통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할 것이다.

부곡과 관련하여 「新羅村落文書」의 ‘西原京□窰子村’의 경우가 참고된다. □窰子村은 지금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해당한다.<sup>71)</sup> 소경에는 州·郡과 달리 영현이 없었는데, ‘西原京□窰子村’이라는 기록을 통해 중심지 외의 지역은 촌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촌은 중간단위 없이 서원경에 직속되어 있었다. 부곡은 □窰子村과 같이 국원소경의 직속 촌이거나 그보다 하위의 촌락이었을 것이다.

현재 충주 내에서 가마골이란 지명은 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금가면 도촌리이

66) 국원문화재연구원, 2022 ; 姜眞周, 2023, 28쪽.

67) 姜眞周, 2023, 32~33쪽.

68) 누암리 고분군과 하구암리 고분군에 묻힌 피장자의 신분과 위계에 대해서는 김중구, 2017 참조.

69) “釜谷山<在縣東十二里 永春縣界>”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제천현 산천조)

70) 鄭求福 외, 1997, 757쪽 주석 17번.

71) 兼若逸之, 1984, 23-25쪽 ; 李仁哲, 1996, 110-111쪽 ; 최경선, 2021, 205-207쪽.

며,<sup>72)</sup> 다른 한 곳은 노은면 연화리,<sup>73)</sup> 나머지 한 곳은 신니면 화안리이다.<sup>74)</sup> 1911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朝鮮地誌資料』에는 면 내의 里洞名과 部落名이 한자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다.<sup>75)</sup> 그런데 여기에는 금가면, 노은면, 신니면 모두 가마골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가마골이라는 지명이 오랜 연원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외에 『朝鮮地誌資料』에 의하면 소태면에 釜洞(지금의 조치리)이라는 지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에서도 釜谷(가마골)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지명만으로는 부곡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부곡은 冶匠이 살던 마을이므로 충주 지역의 제철유적을 통해서도 부곡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충주 지역의 제철유적 중 나말여초까지의 유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76)</sup>

[표 2] 고대~나말여초 충주 지역의 제철유적

번호	유적명	제철유구	출토유물	조업 시기	공정	조사기관
1	충주 대화리 유적	제련로 2기, 폐기장 1기	송풍관, 노벽, 철재, 분말	4C	제련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2	충주 탐평리 유적		송풍관편, 철괴, 노벽편, 집게, 망치, 철착 등	4-8C	제련 단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2012, 2013
3	충주 용교리 유적	배소로 2기, (단야) 공방지 2기	송풍관편, 노벽, 노바닥, 단조박편, 입상재	3-4C	배소 제련(?) 단야	중부고고학연구소, 2021
4	충주 탄금대 토성		철정 40매	4C	정련(?) 단야(?)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5	충주 칠금동 400-1번지	제련로 1기, 배소장 1기	송풍관, 노벽, 철광석, 분말	4C	배소 제련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6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유적	제련로 31기, 폐기장, 소성유구	철광석, 철재, 노벽편, 송풍관	2 C 후 (?)~4C	제련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2020, 2022
7	충주 하구암리 큰골 유적	제련로 2기, 단야로 1기	철재, 단조박편	9~10C	제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72) 도촌리의 가마골은 도리의 남쪽 골짜기로 골짜기 밑에서 쇄똥이 다수 출토되었다고 한다(藥城文化研究會, 1997, 344쪽),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의 사랑골과 금가면 도촌리의 가마골[釜谷]을 강수전의 사랑부와 부곡과 연관지어 보기도 한다(金禮植, 「強首선생과 가마골 처녀」, 『忠淸日報』 1997. 9. 22 ; 김예식, 2002, 308~309쪽 ; 金顯吉, 2011, 439, 464~467쪽). 이는 1977년 최운혁(56세,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1970년에 편찬된 『한국지명총람 3 - 충북편』(한글학회, 1970)에는 도촌리에 가마골 또는 가미골이라는 지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잠병리 사랑골에 대해서는 사랑부와 연관 짓지 않고 ‘길에서 보이지 않고 사랑채처럼 들어 앉아 있’다고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금가면 지역의 강수 관련 전승이 오랜 연원을 지닌 것인지 불확실하다.

73) 하남 북동쪽 마을로 가마술을 만들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대번광산이 생기면서 번창하여 큰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한글학회, 1970, 423쪽). 藥城文化研究會, 1997, 235쪽에서는 분청사기 가마터(연화리 분청사기요지)가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정하였다.

74) 藥城文化研究會, 1997, 227쪽.

75)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76) [표 2]는 조록주, 2022, 126쪽의 표 1 ; 133쪽 표 3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번호	유적명	제철유구	출토유물	조업 시기	공정	조사기관
8	충주 노계마을 제철유적	爐蹟 2기, 폐기장 2개소, 추정공방지 3기, 소성유구 1기	슬래그, 노벽편, 단조박편, 대석, 매납유물, 철기	10~11C	제련 단야	증원문화재연구원, 2010
9	충주 완오리 144-2번지 유적	제련로 3기, 구상유구, 수혈유구 2기	송풍관, 노벽체, 노벽편	10~11C	제련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8

충주 지역에서는 3세기 무렵에 제철기술이 도입되어 4세기대까지 제철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5~8세기에 해당하는 제철유적은 충주 탐평리 유적뿐이다. 충주 지역에서 제철유적은 백제가 충주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신라 말 고려 초에야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탐평리 유적에서는 신라 주거지와 구상유구 등에서 철착, 집게, 도가니, 송풍관, 주조철부, 용범편 등이 나와 중심지 내에서 소규모의 철 가공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sup>77)</sup> 그러나 부곡은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읍의 바깥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와는 무관할 것이다.

아직까지 부곡과 관련 지을 만한 제철유적이 충주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백제가 충주 지역을 점유하던 시기와 달리 신라 시기에는 제철시설이 중심지의 바깥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신 목탄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주변에 제철시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충주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7세기대 목탄요 유적은 아래 표와 같다.<sup>78)</sup>

[표 3] 7세기대 충주 지역 목탄요 유적

번호	유구명	연대측정값	비고
1	영평리 아찰지3 무촉구식 탄요 1호	AMS A.D. 540~650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2	금곡리 2호	AMS A.D. 590~670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3	금곡리 3호	AMS A.D. 530~650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4	금곡리 4호	AMS A.D. 560~660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5	신호리 C-II지구 1호	방사선탄소 연대 1350±60	財團法人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6	신호리 C-II지구 5호	방사선탄소 연대 1360±60	財團法人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7	신호리 C-II지구 6호	방사선탄소 연대 1380±60	財團法人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8	영평리 무무래골 4호	AMS A.D. 600~700 지자기 A.D. 760±15	財團法人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77)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3, 283~286쪽.

78) 박상현, 2020, 120~121쪽 ; 권용대, 2023 참조. 목탄요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의 박상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7세기대 목탄요 유적 중 1·2·3·4는 대소원면에 위치하며, 5·6·7은 노은면에 위치한다. 제철유적의 입지는 원료와 연료 확보에 크게 좌우되며, 그 중 특히 연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sup>79)</sup> 4~6세기대 충주 지역 목탄요의 경우, 제철유적인 칠금동 유적과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하여 제철유적과 목탄요가 인접하였음을 보여준다.<sup>80)</sup> 철 및 철기 생산에 필요한 목탄을 가까운 곳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7세기대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목탄요와 인접하며 교통로상 국원소경 중심지(소비지)인 탐평리와 연결되는 곳에 제철시설이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 부곡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sup>81)</sup>



[그림 11] 7세기대 충주 지역 목탄요 유적 위치

아직까지 부곡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지만, 부곡은 국원소경 중심지 인근에 위치한 직속 촌 내지 하위 촌락으로 생각된다. 국원소경은 골품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읍과 그 외의 촌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경 주민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79) 이남규, 2008, 8쪽 ; 배현성, 2017, 11~13쪽.

80) 李閔雨, 2023, 43~46쪽.

81) 서영일, 2002, 101~102쪽에서도 부곡을 국원소경의 제철과 관련된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야철지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대소원면 일대가 신라 시기의 제철단지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 IV. 소경 주민의 신분

강수 집안은 국원소경의 읍에 거주하였다. 『三國史記』 열전에 강수는 ‘中原京 沙梁人’으로 출신이 기록되어 있어 강수 집안이 沙梁部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수의 아버지는나마 관등을 지녔으며, 강수는 사찬의 관등에까지 올라 6두품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2)</sup> 강수의 아버지와 강수는 部에 속하며 골품과 경위를 지녔던 것이다. 신라는 국원소경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貴戚子弟와 6부 豪民을 사민시켜 국원소경을 채웠다.<sup>83)</sup> 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지배층이 소경에 사민된 것이며, 강수는 그렇게 사민된 지배층의 후손인 것이다. 한편 국원성이 소경이 되면서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부곡 야장의 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F. 그 처가 먹을 것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대신이 이를 듣고 왕에게 租 100석을 하사할 것을 청하였다. 처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첩은 미천한 자입니다. 衣食은 남편을 따라 나라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니다. 지금은 이미 혼자 되었습니다 어찌 감히 욕되게 후한 하사를 받겠습니까?” 마침내 하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sup>84)</sup>

앞서 인용한 D 사료에서 강수의 아버지는 부곡 야장의 딸을 ‘微者’라고 하였으며, 강수는 ‘貧且賤’, ‘賤妾’이라고 하였다. 강수의 사후에 생활이 어려워진 강수의 처에게 왕이 조 100석을 하사하였으나, 강수의 처는 스스로를 ‘賤者’라고 하며 이를 사양하였다. 강수의 처는 ‘賤’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실제 신분을 뜻하는 것일까?

강수 처의 신분은 그의 아버지인 야장의 신분과 관련 있을 것이므로 야장의 신분을 검토하여 보겠다. 장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591년에 세워진 「경주 남산신성비」가 참고된다. 강수가 국원소경에 살던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82) 李基白, 1974, 44쪽; 李基白, 1986, 212-213쪽.

83) “十九年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9년 2월)

84) “其妻乏於食 欲還鄉里 大臣聞之 請王賜租百石 妻辭曰 妾賤者也 衣食從夫 受國恩多矣 今既獨矣 豈敢再辱厚賜乎 遂不受而歸(『三國史記』 권46 열전 강수전)

[표 4] 「경주 남산신성비」의 장인

	제1비			제2비			제3비			제9비		
	B	匠尺	阿良村	干(7)	匠尺	沙戶城	上干(6)				匠尺	同村
		奴舍村	干(7)								□谷村	一尺(9)
文尺			阿尺(11)	文尺		一伐(8)	文尺					小舍(13)
C	城徒上	阿良	上干(6)	阿大兮村作 上人	(阿大兮村)	上干(6)	里作上 人		大舍(12)	城捉上 人	伊同村	上干(6)
	工尺		干(7)	匠尺		一伐(8)			小舍(13)	工尺	指大□村	一伐(8)
	文尺		一伐(8)	文尺		一尺(9)	文尺		吉士(14)	文尺	伊同村	阿尺(11)
	面捉上			面石捉人		一伐(8)	面石捉 人		□□	面捉	伯干支村	一尺(9)
	面捉上			□石捉人		一尺(9)			大烏(15)	面捉	同村	阿尺(11)
	□捉上			□石捉人		彼日(10)	□石捉 人		大烏(15)	□捉人	伊同村	
	小石捉上			小石捉人		彼日(10)	小石捉 上人		小烏(16)	小石捉 人	伯干支村	□□

「남산신성비」에는 축성에 참여한 장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장인은 성을 쌓기 위한 측량과 설계, 실질적인 토목·건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5)</sup> 지방의 장인들은 대체로 上干(6)~阿尺(11) 사이의 외위를 지녔으며, 제3비에 보이는 왕경 喙部 主刀里的 장인은 大舍(13)~小烏(16)의 경위를 지녔다. 신라에서는 장인에게 관등을 수여하여 4·5두품 정도로 대우한 것이다.<sup>86)</sup>

본 비에는 대표격에 해당하는 인물의 명단만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신라가 관등을 수여한 장인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9비에서 잘 드러나듯, 倭伐郡 伊同城徒에 포함되는 伊同村, 指大□村, 伯干支村 등 이른바 ‘자연촌’의 장인까지 파악하여 관등을 수여할 정도로 국가에서 장인을 세밀하게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장인에 따라 수여된 관등의 등급은 달랐다. 관등이 높은 경우, 촌주와 비슷할 정도였다. 제1비에서 郡上村主의 관등은 撰干(11), 上干(12), 匠尺의 관등은 干(13), 제2비에서 郡中上人的 관등은 貴干(10), 撰干(11), 匠尺은 上干(12), 제9비에서 郡上人是 撰干(11), 上干(12), 匠尺은 上干(12), 一尺(15)이었다. 한편 제1비의 面捉上和 □捉上, 제9비의 □捉人처럼 관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sup>87)</sup> 관등의 유무만으로 신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6세기 후반 장인 내부에는 여러

85) 李銖勳, 1994 참조.

86) 金義滿, 1992.

87) 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에 기록된 장인의 지휘를 받아 작업하였을 잡공(雜工)의 경우에도 관등이 없었을 것이다(朴南守, 1996, 275쪽).

층위가 있었다.<sup>88)</sup> 어쨌든 6세기 후반에 장인은 국가로부터 관등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며, ‘자연촌’ 단위의 장인까지 외위를 받을 정도로 그 신분이 낮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후 장인의 신분이 점차 하락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89)</sup> 그에 따라 강수 처에 대한 표현도 사회적 신분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90)</sup> 하지만 통일기 장인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僧匠이 아닌 경우, 대부분 大舍(12)~大奈麻(10) 사이의 관등을 지니고 있었다 ([표 5] 참조). 특히 주목되는 바는 8세기 중반 화엄경 사경에 동원된 지방 출신 장인의 사례이다. 紙作人은 仇叱珍兮縣, 지금의 전남 장성군 진원면으로 추정되는 곳의 장인이다.<sup>91)</sup> 지방의 현에 거주하는 장인으로서 그도나마 관등을 지녔다. 또 經筆師 중에는 古沙夫里郡 (지금 전북 정읍시 고부면) 출신의 장인이 4명이 있는데, 1명은나마, 나머지 3명은 대사의 관등을 지녔다. 8세기 중반까지도 지방의 장인들을 국가가 파악하고 일정하게 대우해주었을 수 있다.

[표 5] 신라통일기 장인의 관등

연대	자료명	장인	출신지	관등	비고
706	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金銅舍利函 銘文	匠	-	-	
725	상원사 동종명	匠人	-	大舍	照南宅
754~755	백지묵서화엄경	紙作人	仇叱珍兮縣	奈麻	
		經筆師	武珍伊州	奈麻·韓舍·大舍	
			南原京	大舍	
			古沙夫里郡	奈麻·大舍	
		經心匠	大京	奈麻	
		佛菩薩像筆師	大京	韓奈麻·奈麻·舍知	
京題筆師	大京	大舍			
754	『三國遺事』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匠人	-	-	里上宅 下典

88) 朴南守, 1996, 309쪽 각주 30번에서는 신라 장인은 여러 계층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6두품은 그 신분적 상한선을 의미하며, 6두품, 5·4두품, 백성층, 노비 신분이 동시에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89) 盧重國, 2001, 286~287쪽.

90) 金昌謙, 2006, 42쪽에서도 대장장이 집안을 천한 신분으로 파악하였다.

91) 文明大, 1979, 33~34쪽.

연대	자료명	장인	출산지	관등	비고
755	『三國遺事』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匠人	本彼部	乃末	
771	성덕대왕신종명	鑄鍾大博士	-	大奈麻	
		次博士	-	奈麻·大舍	
799	龍鳳寺磨崖佛 造像記	大伯士	-	-	法師
804	선림원지 증명	鍾成在伯士	當寺(선림원)	-	師
833	청주 연지사 증명	成博士	-	大舍	
856	규흥사 증명	大匠	-	大奈末	
863	傳 大邱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蠟石舍利壺	匠	-	-	승려
867	鷲棲寺 石塔舍利函記	石匠	-	-	
870	장흥 보림사 북탑지	伯士	-	及干	
872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	鑄字助博士	-	-	
879	경주 선방사 탑지	大伯士	-	-	釋
895	陝川 海印寺 吉祥塔誌	大匠	-	-	僧
		匠士	-	-	僧
		副	-	-	

7세기대 신라에서는 야장을 어떻게 대우하였을까? 밀양 금곡의 제철유적은 6세기에서 7세기 중엽 사이에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방지의 규모가 크며 체련·단야·용해·제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체계를 보여준다. 이는 중앙정부가 철 및 철기 생산과 유통체계를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92)</sup> 철 및 철기생산은 신라사회에서 중요한 산업이었으므로 신라국가는 제철기술을 지닌 장인을 일정하게 대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곡의 야장도 국가로부터 관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92) 金權一, 2020, 221~222쪽.

이렇게 부곡의 야장이 관등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다면, 야가의 딸은 왜 ‘賤’하다고 인식되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高干 都刀의 사례가 참고된다.

G. 백제왕 明穉이 加良과 함께 와서 管山城을 공격하였다. 軍主 角干 于德과 伊滄 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新州軍主 金武力이 州兵을 이끌고 나아갔다. [양군이] 서로 맞붙어 싸우자 裨將인 三年山郡의 高干 都刀가 갑자기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대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겼다. 佐平 4명과 士卒 29,600명의 목을 베었고, 한 필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sup>93)</sup>

H. 新羅는 明王이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이때 新羅에서 佐知村의 飼馬奴 苦都<다른 이름은 谷智이다>에게 말하기를, “苦都是 천한 奴이고 明王은 뛰어난 군주이다. 지금 천한 노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할 것이니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그 후 苦都是 곧 明王을 사로잡았다. 두 번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明王이 대답하기를, “왕의 머리를 奴의 손에 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苦都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奴의 손에 죽습니다.” 라고 하였다<다른 책에는 “明王이 의자에 걸터앉아 차고 있던 칼을 谷智에게 풀어주어 베게 했다.” 라고 하였다.><sup>94)</sup>

위 두 기록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크게 패하고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음을 전한다. 두 기록 모두 성왕을 잡아 죽인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에서는 삼년삼군 출신으로 裨將인 고간 도도라고 하며, 『日本書紀』에서는 佐知村의 飼馬奴 苦都로 전한다. 두 기록이 일치하지 않지만, 성왕을 잡아 죽인 인물로 기록된 점에서 동일 인물로 여겨진다. 도도와 고도로 그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sup>95)</sup>

도도가 지닌 高干은 외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관등으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왕을 죽인 공으로 받은 관등이었을 수도 있다.<sup>96)</sup> 그러나 主將을 보좌하는 裨將의

93) “百濟王明穉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 高干都刀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94)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 是時 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 更名谷智 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 莫忘於口 已而苦都 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國法 違背所盟 雖曰國王 當受奴手<一本云 明王乘踞胡床 解授佩刀於谷智令斬>”(『日本書紀』 권19 흥명기 15년 겨울 12월)

95) 전덕재, 2009, 65-66쪽에서는 양자를 별개의 인물로 파악하였다. 좌지촌 사마노 고도를 삼년산군 고간 도도의 노비로 보아, 주인인 도도를 따라 종군한 것으로 보았다. 『三國史記』에서는 노비의 주인인 삼년산군 도도가 성왕을 죽인 것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96) 梁起錫, 2009, 38쪽 각주 41번에서는 도도가 軍馬를 대대적으로 사육하던 삼년산군 좌지촌의 유력한 재지세력이었는데, 성왕을 사로잡은 공으로 외위 고간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본래 신분이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sup>97)</sup>

그런데 『日本書紀』에는 고도가 ‘飼馬奴’이며, 신라에서 그가 ‘賤奴’ 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도로 하여금 명왕을 죽이게끔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외위를 지닌 지방 유력자임에도 ‘奴賤奴’로 불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였다. 이는 신라 6부인의 지방민에 대한 신분적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sup>98)</sup> 강수의 처가 ‘賤’하다고 인식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부곡의 야장은 국가로부터 관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신분을 지녔지만, 6부에 편적되어 골품과 경위를 지녔던 강수 집안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賤’하다고 인식되었다. 부곡의 야장과 같이 소경의 중심지 외에 사는 주민은 비록 소경민이었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여타 지방민과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곡의 야장은 국가로부터 외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야주 출신 竹竹은 경위인 舍知를 지녔지만,<sup>99)</sup>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에도 지방민이 외위를 지닌 경우가 보이며,<sup>100)</sup> 673년에 옛 백제 지배층에게는 경위와 외위를 구분하여 줬기 때문이다.<sup>101)</sup>

부곡의 야장과 같이 소경의 중심지 외에 사는 주민은 대부분 원주민일 것이다.<sup>102)</sup> 국원성이 소경이 되었지만 원주민은 6부에 편적되지 않았으며,<sup>103)</sup> 골품이 부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주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위를 부여받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賤’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외위제가 폐지된 이후에 여타 지방민과 마찬가지로 소경의 원주민은 경위를 수여받더라도 여전히 6부에 편적되지 않으며, 골품도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충주 지역이 소경이 되면서 소경의 중심지인 읍에는 6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지배층이 사민되어 거주하였지만, 읍 바깥의 공간에 사는 원주민까지 6부에 편적시키고 골품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소경은 지방에 설치된 작은 왕경이었지만, 읍중과 읍외의 공간은 신분적으로 구분되는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97) 최상기, 2020, 162-163쪽.

98) 朱甫暉, 1986, 21-22쪽 ; 朱甫暉, 1998, 242-243쪽.

99) “竹竹 大耶州人也 父郝熱爲撰于 善德王時爲舍知 佐大耶城都督金品釋幢下.”(『三國史記』 권47 열전7 죽죽)

100)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7년 11월 22일 ;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10월 22일 ; 권47 열전7 匹夫 ; 『日本書紀』 권29 天武紀 2년 윤6월 己亥·戊申.

101) “百濟人位 文武王十三年, 以百濟來人 授内外官 其位次視在李国官銜 京官 大奈麻 李達率 奈麻 李恩率 大舍 李德率 舍知 李扞率 幢 李奈率 大烏 李將德 外官 貴干 李達率 選干 李恩率 上干 李德率 干 李扞率 一伐 本奈率 一尺 李將德”(『三國史記』 권40 잡지9 외관조)

102) 소경이 설치될 때 지방민이 사민된 경우도 있었다.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고서 514년 7월에 6부와 남쪽 지방의 人戶를 사민시켰으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5년), 685년 3월에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을 설치하고서는 여러 州郡의 民戶를 사민시켜 살게 하였다(『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4 신문왕 5년). 이렇게 왕경 지배층이 아닌 주민을 사민시킬 경우, 중심지가 아닌 곳에도 정착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103) 하일식, 2011, 209-201쪽에서도 원래 왕경 6부인이 아니라면 소경의 원주민이나 사민된 타 지방민은 6부 소속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V. 맺음말

이상 본 논문에서는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와 구성, 소경 주민의 신분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는 조선 시기 충주목을 기준으로 하여 모색해 보았다. 국원소경의 범위는 충주목의 범위와 거의 비슷하였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충주목과는 그 경계가 다른 곳도 있었다. 청풍현·음죽현과의 경계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六十峙 이서의 진천분지 일대는 국원소경의 영역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지 모호하다고 판단하였다. 후일 자료를 보완하고 교통로나 수계 등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하여 보겠다.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는 오늘날의 충주시와 음성군·괴산군 등의 일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원소경의 공간범위를 이렇게 파악하고서 내부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三國史記』 강수전에는 읍중과 부곡이 대비되는 장소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읍중은 국원소경의 중심지로 오늘날의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해당한다. 탑평리 유적과 누암리·하구암리 고분군이 이를 뒷받침한다. 읍중에는 강수 집안과 같이 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사람들이 대대로 모여 살았다. 한편 강수가 야합한 야장의 딸의 출신지인 부곡은 국원소경 내의 직속 촌 또는 그보다 하위 촌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충주와 음성에 부곡/가마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이 있으나 오랜 연원을 지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7세기대 제철유적은 탑평리에서만 발견되었다. 대신 7세기대 목탄요 유적의 경우에는 노은면과 대소원면 등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그 인근에서 제철유적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곡은 읍중과 멀지 않으며 교통로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국원소경이 설치되면서 貴戚子弟와 6부 豪民이 사민되어 소경의 중심지를 채웠다. 강수는 그렇게 사민된 지배층의 후손으로 사랑부에 속하고 골품과 경위를 지녔다. 국원소경이 되기 이전부터 살았던 원주민의 경우, 국원소경이 되면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부곡 야장의 신분을 통해 밝혀보았다. 신라국가는 장인에게 관등을 수여하며 주로 4·5두품으로 대우하였다. 이러한 점은 통일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7세기대에도 여전히 제철산업은 국가의 주요한 산업이었으므로 야장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대우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야장의 딸은 ‘賤’ 하다고 인식되었다. 이는 신라 지배층의 지방민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표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야장의 경우 소경민이었지만, 여타 지방민과 마찬가지로 부에 편적되기도 골품과 경위를 부여받지도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관등을 받았다면 외위를 수여 받았을 것이다. 즉 충주 지역이 소경이 되면서 소경의 중심지인 읍에는 6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지배층이 사민되어 거주하였지만, 읍 바깥의 공간에 사는 원주민까지 6부에 편적시키고 골품과 경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원소경은 ‘읍중’으로도 표현된 중심지와 그 외의 촌으로 구성되었다. 국원소경의 주민들은 소경민으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읍중의 주민과 그 외의 촌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는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24.05.14, 심사개시일: 2024.06.03, 게재확정일: 2024.06.10.]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

『成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忠州郡邑誌』

『日本書紀』

강민식, 2017, 「신라 서원경의 위치와 범위」, 『中原文化研究』 25.

姜眞周, 2023, 「新羅의 忠州地域 進出過程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文化史學』 59.

兼若逸之, 1984, 『新羅 均田成冊의 分析을 통해 본 村落支配의 實態』,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公社, 2003, 『元香寺』.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3, 『忠州 塔坪里 遺蹟(中原京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국원문화재연구원, 2022, 「충주 읍성 사고 복원사업 문화재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권용대, 2023, 「충주 지역 탄요와 제철기술 발전」, 『문물연구』 44.

金權一, 2020, 『古代 嶺南地域의 製鐵技術의 考古學的 研究』,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光洙, 1972, 「羅末麗初의 地方學校 問題」, 『韓國史研究』 7.

김영관, 2022, 「신라촌락문서의 서원경과 촌락의 위치」, 『한국고대사탐구』 42.

김예식, 2002, 『충주의 구비문학(하)』, 충주시.

김종구, 2017, 「충주지역 누암리·하구암리 고분의 위계 분석」, 『신라사학보』 40.

金昌謙, 2006, 「強首와 新羅社會」, 『震檀學報』 101.

金顯吉, 2011, 『中原의 研究』, 修書院.

金義滿, 1992, 「新羅 匠人層의 形成과 그 身分 - 五·四頭品 研究를 위한 一試論」, 『신라문화  
제학술발표논문집』 13.

盧鏞弼, 1994, 「新羅時代 『孝經』의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  
論叢 <上> - 古代篇·高麗時代篇』.

盧鏞弼, 2007, 『韓國古代社會思想史探求』, 韓國史學.

盧重國, 2001, 「新羅時代의 尺과 干」, 『韓國古代史研究』 23.

단국대학교 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박물관·안성시.

文明大, 1979,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 寫經變相圖의 研究(1)」, 『韓國學報』 14.

文玉賢, 2014, 「中原京地域 基壇建物址의 檢討」, 『文化史學』 42.

文昌魯, 2000,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朴南守,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 박상현, 2020, 「남한지역 목탄요의 변천 양상과 요인」, 『百濟學報』 31.
- 박성현, 2012, 「신라 통일기 州·小京의 성과와 그 활용 - 漢山州와 國原小京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21.
- 朴贊洙, 1991, 「高麗前期 國子監의 成立과 興替」, 『민족문화』 14.
- 朴贊洙, 2001, 『高麗教育制度史研究』, 景仁文化社.
-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百濟研究』 18.
- 배현성, 2017, 「밀양 금곡유적을 통해 본 낙동강 동안지역의 고대 철 생산」, 『지역과 역사』 40.
- 徐榮教, 2021, 「强首와 治家之女」, 『震檀學報』 136.
- 서영일, 2002, 『충북의 고대사회』, 충청북도·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 선사문화재연구원, 2014, 『충주 탑평리 탑평들 유적』.
- 申千湜, 1983, 『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 梁起錫, 2009, 「管山城 戰鬥의 樣相과 影響」, 『中原文化論叢』 12.
- 藥城文化研究會, 1997, 『忠州의 地名』.
- 윤경진, 2012,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 尹在碩, 2011,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比較 研究」, 『東洋史學研究』 114.
- 李基白, 1974, 「新羅 六頭品 研究」,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李基白, 1986, 「强首와 그의 思想」,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 이남규, 2008, 「철기 생산 프로세스의 이해」,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4』, 국립문화재연구소.
- 李閔雨, 2023, 『4~6세기 百濟와 新羅·加耶의 炭窯 運營方式 比較 研究』,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李成市, 2021,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논어 - 한반도 논어 목간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26.
- 李銖勳, 1994, 「6세기 新羅 村落의 匠人集團 - 築城·築堤 금석문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27.
- 이인재, 2016,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혜안.
- 李仁哲, 1996,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 張俊植, 1998, 『新羅中原京研究』, 學研文化社.
- 財團法人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忠州 企業都市 建設敷地內) 忠州 花谷里遺蹟』.
- 財團法人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충주 노은골프장 조성사업부지내) 忠州 新孝里 遺蹟』.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충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영평리·화곡리 유적』.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忠州 金谷里 遺蹟 - 忠州 金谷里 土石採取場 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전덕재, 2009, 「관산성 전투에 관한 새로운 고찰」, 『新羅文化』 34.

- 전덕재, 2021,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 鄭求福 외, 1997,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정동준, 2020, 「동아시아의 典籍交流와 『論語』 목간」, 『목간과 문자』 24.
- 조록주, 2022, 「충청지역 제철유적의 특징」, 『한반도 제철유적 조사연구의 흐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사)한국문화유산협회.
- 朱甫暎, 1986, 「新羅 中古期 村落構造에 대하여 (I) - 外位와 地方民 身分制」, 『慶北史學』 9.
- 朱甫暎,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충주 탐평리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부지내 충주 탐평리 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충주 탐평리 유적(중원경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 중원문화재연구소, 2012, 『충주 탐평리 유적(중원경 추정지) 제3차 시굴조사 보고서』.
- 중원문화재연구소, 2013, 『충주 탐평리 유적(중원경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 최경선, 2021, 「府를 통해 본 9세기 신라의 지방제도 개편과 의미 - 「月光寺圓朗禪師塔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4.
- 최상기, 2020, 『新羅 將軍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일성, 2010, 『충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백산자료원.
-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4, 『忠州 岬 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 - 佛蹟分野』.
- 忠州工業專門大學工業博物館 篇, 1992, 『中原京과 中央塔』,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 충청대학 박물관, 2006, 『충주 승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조선지리지자료 - 충청북도편』, 충청북도.
-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신라문화』 38.
- 韓國教員大學教博物館, 1993, 『충주 탐평리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 韓國教員大學教博物館, 1994, 『충주 탐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한글학회, 1970, 『한국지명총람 3 - 충북편』.
- 황인호, 2013, 「國原小京에서 中原小京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 12-3.
- 轟 博志, 2015, 「新羅國原小京(中原京)の立地に關する歴史地理學的檢討」, 『立命館地理學』 27.
- 橋本繁, 2014,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山田隆文, 2008, 「新羅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實態について - 統一新羅による計劃都市の復元研究」, 『考古學論考』 31,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Abstract】**

## Issues on Space of Kugwŏn Sogyŏng and Status of Residents in the 7th Century of Silla

Choi, Kyungsu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erritory and composition of Kugwŏn Sogyŏng and to reveal the status of residents who lived in the outside of the center of Kugwŏn Sogyŏng. First, various literature records and epigraph materials were reviewed to reveal the territory of Kugwŏn Sogyŏng. The territory of Kugwŏn Sogyŏng was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Ch'ungju-mok of Chosŏn Dynasty,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some aspects. Approximately, it can be said that the territory of Kugwŏn Sogyŏng included Ch'ungju-si and parts of Ŭmsŏng-kun, Koesan-kun and so on.

The composition of Kugwŏn Sogyŏng was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biography of Kang Su(强首) and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results. In the biography of Kang Su, Ŭpchung(邑中) and Pugok(釜谷) were presented as contrasting spaces. Ŭpchung was the center of Sogyŏng and corresponds to the area of T'app'yŏng-ri, Chungangt'ap-myŏn, Ch'ungju-si. Pugok is difficult to determine its location in detail, but it is considered to be a village in Kugwŏn Sogyŏng. It was estimated that Pugok where ironworks was located was not far from the center of Sogyŏng and was connected to the center by road.

Finally, through the case of a blacksmith from Pugok, the status of natives living outside the center of Sogyŏng was revealed. Like the Kang Su family, people who were transferred from capital of Silla to the center of Sogyŏng were organized in Pu(部), and could have Kolp'um(骨品) and Kyŏngwi(京位). On the other hands, it is judged the residents living outside the central town were not organized in pu(部), and could not be created Kolp'um and Kyŏngwi. It can be said th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enter of Sogyŏng were distinguished by their status.

**Keywords** : Kugwŏn Sogyŏng, Chungwŏn'gyŏng, Kang Su, Ŭpchung(邑中), Pugok(釜谷), Blacksmith